

화학제품 인디아 수출 비상!

대부분 상품에 부가세 12.5% 부과 ... 수출가격 인하 부담

인디아 정부가 2003년 4월1일부터 부가가치세(VAT) 제도를 도입했다.

이에 따라 인디아 내 28개 주에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2.5%의 세금이 부과된다.

인디아 정부는 수입의 60%를 차지했던 매출세 및 기타 세목을 부가세로 대체함으로써 국내총생산(GDP)의 11% 선에 이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시장 관계자들은 인디아의 부가세 도입이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큰 조세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.

인디아는 1994년부터 부가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2001년 4월과 2002년 4월에 있었던 2차례의 도입 시도는 매출세 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지방 정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4/07>